

아동 건강한 성장 위한 세심한 배려 '속옷' 선물



초록우산 2024 산타원정대 <3>

초록우산 전남본부가 '2024 산타원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속옷 지원사업을 펼치며 400명의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지원해 지역 아동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 전국 20개 지부에서 진행되는 연말 대표 캠페인으로, 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저소득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이다.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해당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원자와 아동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회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록우산 전남본부(이하 초록우산)는 이번 산타원정대를 통해 진도 수해지구 1곳을 돕는 '천사보금자리' 사업 전개와 더불어 지역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속옷 지원사업을 펼쳤다.

지난해 초록우산에는 '친구들과의 파티'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마땅한 잠옷이 없고 낡고 촌스러운 속옷이 보여질까 부끄러워 참석하지 못했다'는 한 아동의 사

아동 400명 대상 속옷 지원사업 도심·농촌형 나눠 순천·진도지역 대상아동에게서 감사편지 잇따라 "모금활동 계속...많은 동참 바라"

연이 접수됐다. 이에 아이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원을 고민하던 초록우산은 '2023 산타원정대'를 통해 418명의 아동에게 새 속옷과 파자마를 선물했다. 초록우산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은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도 속옷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순천지역대상 아동·청소년에게는 지난 12일 선물을 전달했으며, 진도지역에는 20일 지원이 이뤄졌다. 초록우산에는 선물을 전달받은 아이들로부터 감사편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순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네가족이 살고 있는 지윤(13·가명), 유진(12·가명), 하연(11·가명) 자매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초록우산이 그려진 그림과 함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취학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다는 세자매는 "항상 아버지가 속옷을 사다주셨고, 아버지에게 속옷을 부



초록우산 전남본부는 '2024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통해 지역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언더웨어를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순천에 거주하는 (왼쪽부터)지윤·유진·하연(가명) 세자매가 선물을 전달받은 모습. 초록우산 전남본부 제공



지윤·유진·하연(가명) 세자매가 초록우산 전남본부로 보내온 크리스마스 트리화 초록우산이 함께 그려진 그림.

탁하는 것이 불편하고 민망했다"고 입을 모았다. 막내 하연이는 "검도를 배우고 있어 매일 탈의실을 이용해야 한다"며 "언니들에게 속옷을 물려 입다 보니 속옷이 낡아 끈이 풀리는 일이 자주 발생해 불편함과 민망함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자매들은 편지를 통해 초록우산 등 지원기관과 후원자들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은 "속옷이 너무 예쁘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껏 받은 선물 중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나만의 속옷이 생겨서 정말 기쁘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

을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얻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물을 전달했다"며 "아동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역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산타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산타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초록우산 전남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소제지구 개발 비리 수사 확대...정기명 여수 시장 입건

여수 소제지구 택지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본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소제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정기명 여수시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 외에도 간부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을 입건해 개발사업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 업체 선정에 특혜 의혹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소제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소제지구 개발

사업 담당부서인 여수시청 공영개발과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 일부가 최근 휴대 전화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소호동 소제마을 일원에 215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수시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박군택 의원, 회계책임자 재판 직접 출석...선처 호소

김찰,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 광산구갑)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 법정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 전반적인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초과지출 내역 중 일부가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맡기로 했던 사무원이 그만두면서 회계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행정비서 출신이었던 A씨가 벌인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의원이 법정에 증인

으로 출석해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선출직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민현기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여행 2024/12/02~2025/03/26 1인 상품가 999,000원부터~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